A German Requiem, Op. 45

- □□

정보

개요
곡명: Ein deutsches Requiem, Op. 45
전체 제목: Ein deutsches Requiem, nach Worten der heiligen Schrift
작곡가: Johannes Brahms (1833–1897)
작곡 시기: 1865–1868년
초연: 1867년 12월 1일 Vienna에서 제 1–3악장, 1868년 4월 10일 Bremen Cathedral에서 6악장판, 1869 년 2월 18일 Leipzig에서 7악장판
장르: 독일어 성서 구절에 의한 합창 ·관현악 작품
작품 범위: 소프라노 ·바리톤 독창, 혼성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7악장 원전

IMSLP: Ein deutsches Requiem, Op.45 (Brahms, Johannes)

Wikipedia: A German Requiem (Brahms)

Johannes Brahms의 Ein deutsches Requiem은 독일어 성서 구절을 바탕으로 한 7악장 합창 ·관현악 작품이다. 라틴어 Requiem 미사의 고정문을 순서대로 음악화하지 않고, Brahms가 Luther Bible과 Apocrypha에서 직접 선택한 구절을 연결해 살아 있는 이들의 슬픔과 위로를 다룬다. 제 1악장과 제 7악장이 Selig 로 서로를 비추고, 제 4악장이 그 사이의 평온한 중심에 놓이며, 제 3악장과 제 5악장은 각각 바리톤과 소프라노의 개인적 목소리로 공동체의 합창을 확장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작품은 1865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1867년 Vienna에서 제 1–3악장이 먼저 연주되었고 , 1868년 4월 10일 Good Friday에 Bremen Cathedral에서 여섯 악장판이 Brahms의 지휘로 공연되었다 . 이 공연에는 오늘날의 제 5악장 Ihr habt nun Traurigkeit 가 없었다. Brahms는 같은 해 소프라노 독창과 합창을 위한 악장을 더했고, 일곱 악장판은 1869년 2월 18일 Leipzig에서 Carl Reinecke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초판은 Rieter-Biedermann이 1868–1869년에 발행했다.

작품의 독일어 제목은 우선 텍스트의 언어를 가리킨다. Brahms가 Bremen Cathedral의 음악감독 Carl Martin Reinthaler에게 이 작품을 “인간의 레퀴엠 ”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후대 기록은, 특정
전례의 순서보다 애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구성과 맞닿는다.

Brahms가 피아노 네 손용 대체판도 마련했으며 1871년 London에서 그 판본이 영어로 연주되었다 . 그 판은 관현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쓰이는 별도 매체다. 여기서는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7악장 원전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65–80분이다. 합창 규모와 관현악의 잔향, 제 2악장과 제 6악장의 큰 절정, 푸가의 빠르기와 독일어 자음 처리가 실제 시간에 영향을 준다. 비교 자료로 John Eliot Gardiner의 2008년 실황은 약 65분이며, 보다 넓은 템포를 택한 연주에서는 70분을 넘기도 한다.

I. Selig sind, die da Leid tragen: 약 10–12분
II. Denn alles Fleisch, es ist wie Gras: 약 13–15분
III. Herr, lehre doch mich: 약 9–10분
IV. Wie lieblich sind deine Wohnungen: 약 5–6분
V. Ihr habt nun Traurigkeit: 약 6–7분
VI. Denn wir haben hier keine bleibende Statt: 약 11–13분
VII. Selig sind die Toten: 약 10–12분

편성

성악: 소프라노 독창, 바리톤 독창, SATB 혼성합창
목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콘트라바순 (ad libitum)
금관: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그 밖의 악기: 하프 1부 (가능하면 2대), 오르간 (ad libitum), 현악 5부

콘트라바순과 오르간은 총보에 선택 사항으로 표시되어 모든 공연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하프도 한 파트로 적혀 있으나 두 대를 쓰는 편성이 가능하다. 독창자는 각 악장에서 성서 텍스트의 시점을 열어 준다. 바리톤은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의 변화를 묻고 선포하며, 소프라노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건넨다. 합창은 이 두 목소리를 개인의 독백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공동체의 말로 확장한다.

텍스트의 선택과 대칭

Brahms는 로마 가톨릭 미사의 Dies irae 와 Requiem aeternam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제 1악장은 산상설교의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로 시작하며, 제 7악장은 요한계시록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로 끝난다. 작품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모두 Selig 인 이유는 이 두 악장이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가 아니라, 슬픔에 놓인 사람과 안식에 들어간 죽은 사람을 하나의 위로의 방향 안에 놓기 때문이다.

제 4악장 Wie lieblich sind deine Wohnungen 는 시편 84편의 거처와 찬양을 노래하며 전곡의 가운데에 놓인다. 제 2악장과 제 6악장은 각각 인간의 덧없음과 죽음의 변화를 다루는 큰 기둥이 된다. 제 3악장과 제 5 악장에서는 독창자가 먼저 말하고 합창이 그 말을 받아 공동체의 문장으로 되돌린다. Wikipedia의 구조 해설이 지적하듯, 독창자는 바로크 오라토리오의 독립 아리아보다 악장 전체의 진행에 통합되어 있다.

일곱 악장의 구성

I. Selig sind, die da Leid tragen

성서 출처: Matthew 5:4, Psalm 126:5–6
성격: 위로의 선언
시간: 약 10–12분

첫 악장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둔다는 시편의 이미지가 더해진다. 제 1바이올린을 처음부터 전면에 놓지 않는 낮은 현악과 목관의 음색은 장례 행렬의 외부 장면보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안쪽의 공간에 가깝다. 합창의 Selig 는 작품 전체가 돌아올 언어적 표지이며, 마지막 악장의 같은 단어를 미리 준비한다.

II. Denn alles Fleisch, es ist wie Gras

성서 출처: 1 Peter 1:24–25, James 5:7, Isaiah 35:10
성격: 덧없음에서 구원으로 향하는 대조
시간: 약 13–15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는 구절이 느린 행진으로 제시된다. 관현악과 합창은 인간의 생명이 시들어 가는 시간을 길게 그린 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인내하라는 문장으로 방향을 바꾼다. 마지막 Die Erlöseten des Herrn 에서는 합창의 푸가가 활기를 얻고, 앞에서 이어진 무거운 걸음이 구원의 기쁨으로 전환된다. 이 악장은 거대한 소리만으로 압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진의 절도와 마지막 푸가의 명료도가 함께 필요한 구조다.

III. Herr, lehre doch mich

성서 출처: Psalm 39:4–7, Wisdom of Solomon 3:1
독창: 바리톤
성격: 개인의 질문에서 공동체의 확신으로 이동
시간: 약 9–10분

바리톤은 자신의 끝과 날수의 한계를 알려 달라고 묻는다. 합창은 이 질문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개인의
불안을 공동체의 기도로 바꾸고,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는 문장으로 응답한다. 마지막 푸가는 긴 지속음 위에서 움직이며, 질문이 사라진다는 뜻보다 그 질문이 견고한 합창의 언어 안에 놓인다는 뜻을 강조한다.

IV. Wie lieblich sind deine Wohnungen

성서 출처: Psalm 84:1–4
성격: 전곡의 중심이 되는 평온한 찬양
시간: 약 5–6분

제 4악장은 주의 거처를 향한 시편의 기쁨을 노래한다. 앞뒤 악장의 덧없음과 죽음의 변화를 직접 이어받아
극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합창과 관현악을 안정된 호흡에 놓는다. 이 중심이 있어 제 2악장의 장송 행진과 제 6 악장의 묵시적 절정이 단순한 비극과 승리의 대비가 아니라, 위로를 향해 되돌아오는 전곡의 흐름으로 들린다.

V. Ihr habt nun Traurigkeit

성서 출처: John 16:22, Isaiah 66:13, Sirach 51:27
독창: 소프라노
성격: 개인에게 건네는 위로
시간: 약 6–7분

소프라노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다시 보리라 ”는 예수의 말을 노래하고, 이사야서의 어머니 같은 위로가 그 뒤를 잇는다. 합창은 소프라노의 말을 같은 방식으로 복창하지 않고 다른 성서 문장으로 받쳐 두 목소리의 관계를 만든다. 이 악장은 Bremen의 6악장 초연 뒤 추가되었으며 , 소프라노 독창과 합창의 결합이 제 3악장의 바리톤 질문과 대칭을 이룬다.

VI. Denn wir haben hier keine bleibende Statt

성서 출처: Hebrews 13:14, 1 Corinthians 15:51–55, Revelation 4:11
독창: 바리톤과 합창
성격: 죽음의 변화를 선포하는 대규모 절정
시간: 약 11–13분

바리톤이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악장이 열린다. 합창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 ”이라는 구절에서 죽음의 변화를 선포하고, Der Tod ist verschlungen in den Sieg 에서 죽음이 승리에 삼켜졌다는 문장으로 나아간다. 마지막 푸가는 제 2악장의 푸가와 대응하지만 , 그때의 소멸과 기다림이 여기서는 변형과 승리의 언어로 바뀐다. 금관의 음량이 큰 만큼 합창의 독일어 자음과 여러 성부의 진행을 가리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

VII. Selig sind die Toten

성서 출처: Revelation 14:13
성격: 안식과 귀환
시간: 약 10–12분

마지막 악장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는 구절로 제 1악장의 Selig 를 되돌린다. 여기서 합창은 제 6 악장의 승리를 반복하지 않고, 수고를 그친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다는 문장으로 속도를 가라앉힌다 . 하프와
오르간을 포함한 관현악은 합창을 덮는 장식이 아니라, 마지막 합창이 긴장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처음의 슬픔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거친 뒤 다른 의미의 복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지막
단어가 완성된다.

공연의 관점과 레코딩

Robert Shaw를 다룬 Chorus America의 심포지엄 자료는 Brahms의 레퀴엠을 합창 텍스트, 빠르기, 실제 공연 구성이 함께 얽힌 작품으로 설명한다. 그 자료는 합창을 단순한 음량의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제 2악장과 제 6악장의 푸가에서 독일어 단어의 시작과 성부의 진입을 분명히 하며, 제 5악장에서는 소프라노의 선율과 합창의 다른 텍스트를 분리하는 접근을 강조한다. 제 7악장의 긴 전곡 뒤에는 자음의 윤곽과 여린 종결이 남는다.

John Eliot Gardiner의 녹음은 서로 다른 공연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John Quinn은 1990년 스튜디오 녹음과 2007–2008년 실황을 비교하면서 , 후자의 비교적 작은 전문 합창과

가까운 홀 음향이 더 선명한 세부를 들려준다고 평가했다. BBC Music Magazine의 Natasha Loges는 Gardiner의 2008년 실황에서 역사적 악기 접근과 Monteverdi Choir의 민첩한 합창을 특징으로 들었다. Otto Klemperer의 1961년 녹음은 넓은 구조와 전통적인 합창 음색을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로 소개된다. 각
평가는 해당 비평가의 관점에 귀속된다.

레퍼토리상의 의미

Ein deutsches Requiem은 Brahms가 대규모 성악 ·관현악 작품의 작곡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합창은 성서 구절을 전달하는 배경이 아니라 작품의 형식과 시간을 직접 만든다. 독일어 텍스트를 개인적으로 배열한 방식, 바리톤과 소프라노를 악장 구조 안에 배치한 방식, 제 4악장을 중심으로 첫 악장과 마지막 악장을
대칭시킨 방식이 이 작품을 전례용 레퀴엠과 구별한다.

그 결과 작품의 중심은 죽은 사람을 위한 심판의 선언보다, 슬픔을 겪는 사람이 공동체의 목소리 속에서 위로를 얻는 과정에 놓인다. 제 2악장과 제 6악장의 큰 절정은 제 1악장과 제 7악장의 Selig, 그리고 가운데의 평온한 거처와 연결될 때 전체 구조를 이룬다. 합창의 발음, 독창과 합창의 균형, 관현악의 어두운 저음과 밝은 금관이 이 관계를 실제 소리로 드러낸다.

주요 자료

Indianapolis Symphony Orchestra, Brahms: A German Requiem — 비전례적 독일어 레퀴엠의
텍스트와 위로의 방향에 관한 공연기관 해설.
Chorus America, Robert Shaw and Brahms Requiem — 합창 텍스트, 빠르기와 공연 준비에
관한 Robert Shaw 자료.
Natasha Loges, BBC Music Magazine 계열 녹음 안내 — Daniel Harding, John Eliot Gardiner, Otto Klemperer 녹음의 구조 ·음향 ·합창 평가.
John Quinn, MusicWeb International, Gardiner SDG 706 — Gardiner의 1990년 스튜디오와 2007–2008년 실황, 합창 규모와 음향 비교.
The Guardian, Edward Gardner recording review — 현대 연주의 위로와 축하 사이 균형을 다룬 독립 비평.